

일어나 함께 가자

+ 미얀마 이주민 선교 스토리 +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18)

샬롬,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여름 한국은 무척이나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묵묵히 견디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우리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편지는 저희 가정의 100번째 선교편지입니다.

지난 인도와 태국 선교지에서의 1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순간이 기다리시고 일어나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서 에 푸웨와

서 에 푸웨와(21세)는 치앙센 은혜교회의 청년입니다.

다른 미얀마 청년들처럼 미얀마에서 강제 군정집을 피해 3년 전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이주한 사촌형과 함께 고무농장에서 일하고, 메콩강을 오가는 상선의 물건을 나르는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년 전부터 치앙센 은혜 교회에 나오며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가 많이 오던 밤, 에 푸웨와는 야간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앰불런스로 치앙라이 정부병원에 옮겨졌지만, 이주민 신분이라 적절한 보험도 없어 신속한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제안한 수술비만 20만 바트, 당시 한화로 약 940만 원이었고 입원비도 하루 3,000바트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미얀마에 계신 청년의 부모님과 치앙센 은혜 교회 식구들이 어렵게 마련한 5만바트의 재정으로는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찾아가 목에 고정장치를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에 푸웨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동역자님들께 긴급하게 기도부탁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친자처럼, 손주처럼 느끼시고 에 푸웨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 주셨고, 기적적으로 이틀 만에 수술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후 마침내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다시 일주일 치료 그리고 퇴원하여 치앙센 은혜 교회에서 한달 가량 머물다 지금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에푸웨와 청년



수술 후 퇴원하여 교회에서 회복중



그레이스 출신 메파루왕 대학생과의 첫모임





치앙라이 은혜교회 대학생 장학금 수여



메싸이 은혜교회 대학생 장학금 수여



미소가 예쁜 미얀마 친구들

우리는 예푸웨와를 위해 기도하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살피시며,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뿐 아니라 태국과 미얀마, 필리핀과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사모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명의 성도님, 아기를 키우는 성도님, 위경 가운데 건지심을 체험한 성도님,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유로 헌금을 보내주셨고, 간절한 합심기도가 미얀마 청년 예푸웨와를 위해 모아졌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14)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메파루왕 대학 학생 장학금 지원

8월에는 메싸이 은혜교회 대학생 3명과 치앙라이 은혜교회 대학생 4명, 모두 7명의 학생들에게 총신교회에서 보내주신 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5~6월에도 진관교회와 총신교회에서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GED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미얀마 대학생들의 학업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어 학생들도, 저희들도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얀마 학생들의 꿈을 위해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처럼 우리 그레이스 교회 청년들도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파루왕 대학, 새로운 사역의 문

저희가 살고 있는 치앙라이에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메파루왕 대학이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태국 학생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이 중 미얀마 학생만 약 2,000명에 이릅니다. 이번 8월 새 학기를 맞아 메싸이와 메숫 은혜 교회 출신 학생들이 메파루왕 대학에 많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학생들을 환영하고 치앙라이 은혜 교회를 소개하고 교제하고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15명의 대학생들과 치앙라이, 메싸이 교회 목사님 부부 두 가정, 저희 가정이 함께 모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었습니다.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른 도시에서 온 그레이스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레이스 홈’이라 이름하고, 우리 은혜 교회 자녀들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미얀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센터를 마련해 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파루왕 대학 가까이에 미얀마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렌트 하우스, 그레이스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영어가 함께 자라는 ‘Sing The Bible’

7월 4일부터 치앙라이 은혜교회 4~6학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Sing The Bible’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0주를 진행하였고, 36명의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 성경 노래를 통해 노아, 모세, 보아스와 롯, 기드온, 엘리야 등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배우고, 만들기과 게임을 통해 말씀을 더욱 즐겁게 익히고 있습니다.



Sing The Bible 어린이들과 함께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성경 교실



팡 은혜교회 목사님 부부와 딸 그레이스

한국어 교실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아이들

8월 25일부터 메싸이 은혜교회 GED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 매주 한 번씩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열립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생각과 눈빛, 아이들의 태도를 알아가고, 저희들은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에 애정을 갖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8월부터 만나기 시작한 이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메싸이 은혜교회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저희 가정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수고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헌 선교사 올림

<저희를 위한 기도와 후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 메파루왕 대학교 근처에 미얀마 대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레이스 홈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 많은 미얀마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2. 한국어 교실 학생들과 Sing The Bible에 참석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믿음과 배움이 함께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3. 팡 은혜교회 요한 목사님의 딸 그레이스에게 뇌와 관련된 질병이 생겼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잘 찾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레이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4.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드림 여성 합창단의 저희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모든 일정과 팀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서로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5. 딸 예진이가 9월 초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UN산하 IOM(국제이주기관) 인턴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6개월동안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귀한 경험 되도록, 군복무 하는 하진이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TALK lovekolkata



+66- 09369- 49590(태국)
010- 4065- 7579(한국)



under1231@daum.net

후원계좌

하나은행 920 - 193076 - 131 (GMS 이승현 / 윤선헌)
우리은행 165 - 08 - 271938 (이승현)



총회세계선교회 GMS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